



- ...우리의 目標...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僑胞를 그리스도에게로案内하자 1967年頭의 總會長의 所信 田 福 永



종구영신에 우리 총회도 그대로 종구영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숙을 이루어 마지 않습니다. 금년의 우리 표어는 『재일교포를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예사로운 표어 같으나 우리 재일 대한기독교회 존재의 의미를 한마디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표어입니다. 이 외에 우리의 이의외목적이었음입니다. 앞으로 선교七十주년을 향하는 태세도 이 표어가 지향하는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특성도 이 표어로 말하고있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대를 교포로 한정하는데 우리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상대적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모두가 대화로 화해야 하는데 교포와의 대화는 우리 재일교포라는 특이성을 보다 더 명확히한 후에야 올바르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총회의 조직도 이 시점에서 보전대 조직을 위한 조직에 빠지지 말고 「재일교포를 그리스도에게」의 목적을 위한 순수성과 진지성을 재인식 하는 조직이 되어야 우리의 교회관이 수득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표어로서 지향 되고 있는 한가지는 교포를 향하는 교회로서 대하는 【열 줄】은 목사의 얼굴만 아니라 신도 전원의 얼굴을 전부 들어 교포도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도운동의

제일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인 교회의 체질개선의 초점입니다. 신도의 생활전체가 「교포를 그리스도에게」의 활동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사도시대 때 돌아가서 목사는 사도요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명적 인식을 재확인 하고 이에 강력한 움직임을 전개 하여야 합니다. 一, 전도국은七十주년을 향하는 사업의 구체적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추진하고 성사시킬 것인가 하면 교회전체 신도전체가 동원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교역자나 몇몇 총회 총대의 독단장이 되면 모든 계획은 그림자의 떡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도 전체가 응분의 은사를 100% 발휘 동원 할 수 있도록 전도국으로서 그 방책을 세워 진영을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국으로서 평시도를 어떻게 하면 선교제일선에 동원할 수 있을가를 근본적으로 검토 하고 구체안을 하나 하나 충실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各機關은 宣敎 体制를 強化하라

平信徒들의 機動的活動에 期待

一, 교육국은 기독교 교육의 원리와 이념을 유아 소년의 자리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신도의 선교적 교육을 검토 하여 사업의 목표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 『디나제-적교회』로 체질개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一, 청년국, 부녀국의 노선도 소위 청년지도 부녀지도에 한할 것이 아니라 청년신도 부녀신도의 선교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一, 후생국은 소위 구체 사업에만 끝일 것이 아니라 신도의 생활을 증진의 생활로 힘차게 생각해 나아가 수 있도록 생활전반의

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교역자나 몇몇 총회 총대의 독단장이 되면 모든 계획은 그림자의 떡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도 전체가 응분의 은사를 100% 발휘 동원 할 수 있도록 전도국으로서 그 방책을 세워 진영을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국으로서 평시도를 어떻게 하면 선교제일선에 동원할 수 있을가를 근본적으로 검토 하고 구체안을 하나 하나 충실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任職員會討議에 부치는 提言

組織敎會의 機構에 再考를

총회임직원이 신년벽두에 京都敎會에 소집된 10월총회에 선정된 후 본격적 활동을 검토 하는 회의로서는 처음이다. 감사절 크리스마스 신년집회등으로 각 교회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매년 이때쯤에 소집되는 것 같다. 그러나 1년임기의 1/4이던 시간이 흘러 간 것은 부정 못할 사실이다.

年間行事討議는 늦다

이제 검토되는 일들은 반년간 일 밖에 더 못된다. 조직체의 사업을 체계있게 정리하여 성과 있게 하려면 총회를 3년에 한번 정도 하고 총회 임직원은 선임 받은 후 이 적당 동안에 여러가지 할 일들을 심중히 연구 정리했다가 이 회의에서 공개 토론에 부쳐도록 하면 좋은 것 같다. 필자의 본래의 주장은 활동 계획을 총회전에 공개 토의한 후에 적임자를 선출하라는 것이었으나 여기서는 선출을 먼저 했으니 순서를 바꿔서 이제라도 사업활동에 건전한 체를 확립 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 것이다. 이 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의 사명적 성격이 분명치 못한 것 같다. 속되게 말한다면 감투만 바꿔 쓰는 총회다.

총회란 조직은 교회와 사명을 강력히 추진 전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의 총회는 추진력의 핵심이 못되고 있다.

思考方式은 旧態依然

- (1) 재일동포 속에 선 교회의 사명 역할을 강력히 발휘 하도록 하라.
 - (2) 민족의 중대관심인 국토 통일에 적극적 활동을 전개 하도록 하라.
 - (3) 한일 양국간의 화해에 노력 하려면 일방적 증노릇만 하지 않도록 하라.
 - (4) 총회에 전략적 계획을 꾸미거나 개체교회를 사회화 하거나 이기적 지반으로 하려는 일들이 있을 때엔 그리스도 교회의 위신을 엄연하게 하라.
 - (5) 고정화된 총회 조직부서의 그 목적과 역할을 재검토 하여 삼만 중부된 전근대성을 탈피 함과 동시에 조직의 원화히 운영 발전 하게 하라.
- 요컨대 필자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힘준한 외국공토에서 건전한 발전을 하기 바라는 소집되는 임직원회에 소정의 줄거리만을 부친다.

【羅】

平野敎會 電話番號變更

709-1559

平野敎會牧師館
大阪府八尾市竹濑320의7

良書紹介									
池東植敎師外十一人執筆 나는 어떻게 대답한다 〈再版〉	46版 208面 70원	金正俊博士譯 젊은 知性人에게 〈再版〉	46版 256面 150원	金正俊博士譯 어거스틴 懺悔錄 〈七版〉	46版 280面 150원	본그리 스도 〈五版〉	46版 288面 130원	金春培敎師著 殉敎史話集 〈五版〉	46版 312面 150원
金鍾商先生著 이것이냐 저것이냐?	46版 252面 150원	一九六五年度 韓國의 講壇	46版 262面 150원	柳東植敎授著 韓國宗敎와 基督教	46版 278面 250원	尹聖範博士著 基督教의 韓國思想	46版 276面 250원	蔡弼近敎師著 哲學과 宗敎의 對話	46版 430面 300원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신앙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 책은 11명의 저자들이 각자의 신앙과 문화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이 책은 11명의 저자들이 각자의 신앙과 문화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法團 大韓基督教會
對替 서울 一三九番

祖国南北統一論議에 對한 国内教界의 反響

在日韓人들도 生覺할 問題 ③

아모든 통일 문제는 정치가만 관심을 기울일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문제로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 문제에 등한할 수 없다 교회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독교 통일 연구기구 설치라고 말한다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북한의 종교 교회 실태조사 사상적 상황 파악 기독교통일연구생 양성 반공교육 실시공산주의 연구회 대표 파송 등으로 먼저 북한을 연구 하고 그들의 현향을알고서 우리로서의 태도를취해야겠다고 말 한다 또한 통일의 때 나란적이면 만을 생각할 수 없고 비관적인 경우나 비극의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경우를 생각 하고 자기 방위를위해 조직된 힘을 준비 해야 한다고 한다 池교수는 교회는 통일 때의 비극적 면을 예상 하며 자기 방위 준비와 공산권 안의교회 해서 조직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태도나 위기의 때에 일시적으로 봉기하는 류의 교회가 아니라 강력하게 조직된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통일문제연구하라

강 신명목사는 교회가 통일문제 연구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현재의 분열된 한국 교회실정이 통일 문제 운운할게제가 되느냐고 교회 분열의 비극과 자책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 자체의 자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통일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趙목사는 강조하면서 공산주의 사상만으로 무장 시키려는 여한은 정신적 진공 상태가 이것이라고 말 한다 인간은결코 어떤 주의나 강력한집단의 힘으로 다스려 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회는 그 몸의 정신적 사상적 진공상태를 메우는 메시아적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말한다 소련이나 동구라국의 현실이 날로 공산주의에대한 불신과 더불어 종교에로 기울어 지는 경향이있

기독교사상의체계를세우라

기독교적인 사상 체계와 바탕 없이 공산주의와의통일을 생각할 수 없다 또한 통일논의는 특수인사람만이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과 논의가 되어야할 것도 사실이다 우리사상적 도의적인 문제확립과 대 공산주의 신념의확신을 위해 교회의 새로운각성을 바라고 북한의 특수상황에 대한 자유로운연구를 위해 정부의 협조도부탁하고 싶다

(基督思想에서)

李泰雨전도사 東京에

한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 태우전도사는 東京한국기독교청년회 간사에취임하게 되었다

이전도사는 同志社大學재학중 부러 목회목사를 목

음도 그 한 예라는 것이다 통일 때에 어떤 면에서는 한이 급속도로기독교화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적응할 구체적인 교회의 체제를 연구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적대 감정을 화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화해의 주체역할도 교회가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한을 연구하고 아는일을 위해 통일연구기구를 수립하고 통일후에 올 교회의 문제에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런작업을 위해 정부의 통일연구 기구와 긴밀한 협조를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기관도 공산주의체제를가진 이북과의 대결에 있어서 기독교와의 충실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적하고 공부하면서 일본기독교청년회 학생운동에 관제한바가 이번 취임의 계기를 지은듯 하다

이전도사를 길러준 京都교회에서는 광대한 경도지역에서 건설한 목회목사로 기대한다고한다

崔忠植講道師 京都에

일년간 한국신학대학원에 유학한 최중식씨는 京都교회에 부임하고 앞으로 교회와 사회사이에 좋은 일들을 할 결심을 했다고한다

최중식씨는 同志社신학에 들어가기 전에 京都부립大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공한바가 있기에 그에 대한 새로운 활동이 크게기대되고있다

東西獨逸統一에 努力하는 基督者들

政治에 先行하는 積極性發揮

서부 독일과 동부 독일에 사는 국민들의 대화의 가능성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대화의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쪽의 서로빈번한 서신 교환을 해 왔으며 그 결과 동독 사회당 지도자들과 서독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이 베르린에 모여 보다 큰 규모의모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특히동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보다 더 성공적인 것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연구 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에 직접개입할 것이 아니라 동서간의 대화에 교량적 역할을 담당 하기를 바라고있으며 이미 복음교회 연구회 주최로 보쿰과 함부르크에서 작은 규모로나마접촉을 시도 하고 있다

東西獨逸青年의 對話

함부르크에서는 YMCA가 주최하여 동, 서독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광장을 마련 했다 비록 정치적인 어떤 결론에도달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말한다그의 의의가 큰 것이었다고 한다

루터교 세계 대회는 다음번 대회를 동독에 있는 루렌지아 바이발 에서 개최 하도록 계획 하고 있는데 루렌지어는 루터교의 뿌리 깊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에는 많은수의 교인이 있다 특히 이곳 교인들은 교회음악에관심이 대단하고 트롬본 성가 합주단이 유명 하다

양단된국토회복 을위하여

독일교회라면 二차대전중에는 일부교회가 나치의편에 섰던 인을 기억 하지만 오늘날은 그때와는 달리 양단된 국토의 회복을 위한 동서간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교회가하는 역할이 자못 크다고할것이다 단순히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에 그 열의가대단 하여 동독에서도 성서의 보급 운동이 매우 활발 하다고 한다

伝道에 努力하자 教会發展의 鍵

宇部전도소 教会 로송격

宇部라는 곳은 세멘트생산으로 알려진 지역인데우리동포들의 노동력이 제공된 동기도 거기 있었다고한다 해방후 下關教會의전도 활동으로 집회가 시작되었다 지금 11명과 학습교인 7명 구도자지 합하면 30명가까운 어른집회가 모인다 여기에목회자는 우리민족과 함께죽으시려는 여선교사 버거만(通名朴우만) 선생님이시다

주일학교에는 약 30명아동 생도들이 모이는데 교사가 13명이란 우수한 모범적 인원구성이며 청년회도 남자5명 여자6명의 11명으로 조직된 아담한 교회다 형태만 덩굴한 교회보다 소박한 가운데서 단순하게 믿음으로 장성하는 이 교회에 주목할 바 있어 보인다

使徒信條 解説

믿음이란 무엇인가 ②

모든 교회당을 무너뜨리고 뱀터첼리의 그림과 박호의 음악을 말살시키고 캐이커교도를 위시한 모든 구호사업을 제해 버리고 국가와 인종과 계급의 차이를 두지 않은 자발적인 봉사의 판념을 빼여 버려야하며 내 원수도 내 친구와같이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도 없애고 그리스도를통하여 받은 모든 신앙과소망을 말살하고 볼 것이다

이렇게만 할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옛 이방세계에 끼친 영향을 다 소간이나마 알 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이위대한 역사적인 신앙의 골자속에 창조적인 생명력이 있는가 합을 인식해야 할 것이니이에대하여 예수 자신이 거듭 거듭 강조 하셨다 한변은 유력한 사회적 지도자가 자기 종의 병을 고

쳐 달라고 찾아와 주님의 능력에 대한 굳은 신앙을 고백하는 말을 들으시고예수는 『가라 네 믿음대로될지어다』 하였고 딸이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두려워말고 믿기만하라 고 신앙의 생명력을강조 하였고 예수가 과연 자기 아들을 고칠수 있을까 없을가 하는 의심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서서 하는 말을 한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답 하셨으며 또 어떤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고 말씀 하셨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신앙의 강한능력을 말하는것이다

누구를믿었느냐

신앙에 이처럼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외적행동에하에 있다기 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신앙의 내용여하에 달렸던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 하고 있는 중요한 이

비오로기의 갈등 속에서오직 위대한 신앙가 만이가장 올바른 투쟁수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품고 있는 인생관 보다 훨씬 더 깊고 보다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기계를 움직이지 않으려한 상품을 강물 같이생산 한다 할지라도 그 기계 자체는 사상에 충분한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최후의 파괴력을 가진 폭탄일지라도 사상에참다운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계 속》

成順華さんのこと

中森幾之進

(日基教団浅草北部教会牧師)

八幡浜教会の菊地さんが、成順華さんの送別会の写真を送ってくれたのは、わたしが上京して二年後のことでした。

順華さんが長男の周慶さん一家と本国に帰ることになり教会では功労表彰状と記念品を贈って感謝の心を表しました。表彰状と記念品を抱えた順華さんは、教会員に囲まれてうれしそうですが、わたしには寂しそうにも見えました。当時七十才を越えていた順華さんは、日本語がたどたどしいので、いつも孫の君子さんを通訳に連れ歩いていました。君子さんは小学校三年生でしたが心臓が悪く、発育も不良で一、二年生に見られました。それでも頭がよく、おばあちゃんの耳と口の代役をじゅうぶんにこなしていました。

順華さんが八幡浜教会の礼拝に出るようになったのは、亡夫の葬式が縁になったのです。彼女は八幡浜市に移り住んで二十年にもなるというのに、どこの教会にも出席していません。

というのは韓国の教会がなかったことと、日本の教会では言葉がわからないことからためらいがあったのでしよう。わたしたちもうかつては日本人にばかり目を向けて、かたわらに重荷を負うてあえいでいる韓国人たちがいるのに目もくれなかったのですから。その点だけをとってみても、ひとりの順華さんは八幡浜教会と牧師のわたしにとってもよいことをしてくれたわけですから。わたしが教団総会出席のため上京している留守に順華さんは教会を訪れ、婦人伝道師の森分さんに、夫の葬式をぜひやってくれと頼んだ。

しに、森分さんはこんなことを言いました。

「おばあさんは 信仰のしっかりした、えらい人です。家族や親族の反対を押さえて日本の教会に葬式を頼みに来るのは勇気がいります。それに教会のことなど全然知らない息子や孫、親族知人をデキパキとさしずして、ちゃんとキリスト教のお葬式をすませましたからね。礼拝に来なさいと言っておきましたから、次の日曜あたり出席するかもしれません」

そのとおりでした。中学生の義雄君と小学生の君子さんを連れて教会学校に間に合うように出て来ました。それから義雄君と君子さんが忠実な教会学校の生徒になったことは申すまでもありません。成さん一家は大家族で、長男は豚を飼い、二、三男の家族ぐるみで飼料を集めたり、廃品の回収をしたり、日傭に出るかと思えば小商売をするといった具合でどん底生活を必死に支えているのです。順華さんには喘息の持病があり、時には気の毒なほど咳きこむことがありました。その上、二男の妻が赤ん坊を残して家出してからは、母親代わりにその子供を育てることになったので負担は倍加しました。「日本人女、韓国男だまして悪いよ」と言っていたが、恨みがましくは聞こえませんでした。哺乳ビンを持ち、ねんねこで赤ん坊をおんぶした順華さんを、礼拝の会衆の中に見るとわたしの心は燃えました。語学の苦手なわたしが、当時手にはいりなかった韓国語の聖書やさんびかを捜して、市ヶ谷の大韓基

の入問書を買ったのは、少しでも順華さんとじかの話し合いがしたかったからです。

彼女が入信したのはまだ二十才代若いころで、郷里に巡回していた宣教師に導かれたのです。村の教会で洗礼を受け、その後、同信の夫と結ばれ信仰の家庭を作ったのです。

信仰の兵士たろう

全青協中央代表委員

崔秀賢

まず何よりも、私達は教会青年として、この一年間を力強い信仰の兵士として闘いぬく者になりたい。私達に負わされた「しもべとしての働き」を忠実に忍耐強く雄々しくなし尽けて行きたい。

「しもべの働き」というスローガンはもちろん平凡でかわりばえしない。しかし、私達は奇をてらうことなく、平明さの中の非凡さを求めたい。崩れ混乱し全てが平盤化した現代にあつて、更に在日韓国人という特殊な状態を背負っている故に、我々はどうしても一風変わったもの、奇なものを求めつづけたりしがちで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中にあつて、私達はもう一度新たな勇気と決断をもって最もまともなものを求め、最もまともなものに連なる困難と苦しみに参加するものになりたい。キリストにあつて与えられた道を英知と勇気をもって正攻法でぶつかり、その故に苦しみ悩み喜ぶ者になりたい。しもべの働きとは、私達

日本に渡ってから三十数年間というものは、次々に生まれる子供を育てるのに手一杯でした。順華さんたちの住んだ場所には韓国の教会がなかったし、たった一つ信仰生活を支える道は、夫と二人で聖書を読んで祈ることでした。それを順華さんは君子さんの口を通してこんなふうに表示しました。

「韓国の教会、日本になかったよ。韓国では教会も信者も多いね。日本にいる韓国人信者少ないよ。子供たち神さまわからない。わたし、つら

かったね」

夜の集會に家族を六、七名もつれて出席し、そのひとりひとりをわたしに紹介して、祈りを求めたのも、そうした心境の表われだったのでしよう。家族たちが不幸に会うと順華さんは朝四時から付近の山に登って太陽の上るまで祈りつづけました。打開の道が見つからない苦しみの中で、「神さまのお恵み十分よ」と言っていた順華さんは、きっと主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愛に迫られていたのです。(信徒の友 1966. 1月号より)

なに、なんと素晴らしいことだろう。法的地位、永住権の問題など僑胞の問題、南北の対立、更に我々の住む日本の社会の矛盾や混乱(信仰の自由をおびやかさんとする紀元節の復活や、昨年全修での日本の部落問題などを断承して)にも雄々しく立ち向い、又苦しむものになりたいと思う。

私達青年は、今日自分の生を燃焼させるものを求めている。それが与えられぬ故に、意気消沈し、日々を耐えている。しかしキリスト者青年はすでにこれを与えられている。私達はこの基本線に立ち戻りそれから今日の教会の偏狭さ、不勉強、閉鎖性を私達の自身の課題として、対決し、克服したい。青年の性急さ、未熟さをごまかすことなく、これから繰りひろげられんとしている研究活動や、聖研、祈り、交わり、奉仕などをなして行きたい。

在日韓国人の弱少さと特殊性に徹し、そこから万人に通じる最もまともな中に咲いた花を咲かせるために、今年一年間も、着実に神に従い、人を受け入れ、已れにうち勝ちつつ豊かなものを築いて行こうで

今、ここで、その本来の厳しい意味に於て目指すべき基本的姿勢である。韓日国交回復の二年目を迎え、在日韓国人の歴史は大きな曲り角に来ている。日本へ帰化を希望する者は急増し、私達は今や真剣に自分の身のふり方を考えずには生きられない。このような喪失と苦悩と模索の中で、私達がキリスト者として真実に生きようとするなら、このつかわれた場に背を向けるのではなく、この世に仕える姿勢なしには、キリスト者の行く道はない。そしてこのしもべの道は、本物の険しさと苦しみと、本当の喜びの道であり、それは共同の祈りと交わりと学習と鍛練なしには、とうてい果せない。

私達は、目前の問題の大きさに、ひるむことない、素朴なまともな勇敢さを得たい。私達は「世に仕える教会」を今年の各種の青年の修養会の主題に選んでいるが、この青年の集まりから、私達の教会の閉鎖性、隠とん性からの脱

伝道は信仰告白

コリント前書2:1～5

「兄弟たちよ、わたしもまた、あなたがたの所に行ったとき、神のあかしを宣べ伝えるのに、すぐれた言葉や知恵を用いなかった。なぜならわたしは、イエス・キリスト、しかも十字架につけられたキリスト以外のことは、あなたがたの間では、何も知るまいと決心したからである。わたしがあなたがたの所に行った時には、弱くかつ恐れ、ひどく不安であった。そして、わたしの言葉もわたしの宣教も巧みな知恵の言葉によらないで、霊と力との証明によったのである。それは、あなたがたの信仰が人の知恵によらないで、神の力によるものとなるためである。」(1コリント2:1-5)

ペンテコステは世界伝道開始の日でもあるが、教会の使命は実に伝道のみ。

①

「なぜなら、わたしは、イエス・キリストしかも十字架につけられたキリスト以外のことは、とあるように、何を伝道するか。」

○イエス・キリストを伝えるのである。そしてこれは、文化的道徳的社会的なキリストでなく、又私の考えているキリストでもなく十字架につけられたキリストである。それは即復活のキリストであり福音である。道徳修養、宣教的感情でなく福音である。我らの罪とその救いである。

○而してこの事は又、人をキリストのもとへ連れてくる事でもある。アンデレはペテロを、ピリポはナタナエルをそして私達の多くも又誰かに

つれて来られたのである。「来りてみよ」という事であり私を示すのではなくしてキリストを示すのである。

○「キリスト以外のことはあなたがたの間では何も知るまいと、決心したからである」というが、パウロはキリスト以外何も知らなかったのではない。この言葉の中には実に多くの事を知っていた事がうかがわれる。けれども彼は「かく決心した」と。伝道は只キリスト。キリストのみを。いかにキリストのみに徹していたか。之はせまいのではなくて深くキリストを経験していたのである。真に深くキリストに徹したパウロは実に他の多くの事を知っていたのである。而も彼は他の多くの事を知っていた故に、只キリストのみにますます徹したのである。キリストのみで足らないのではなく充分なのである。只キリストのみを語るこゝに教会の使命がある

②

「そして、わたしの言葉もわたしの宣教も」とあるように、いかにして伝道するの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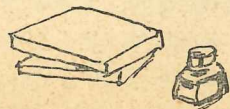
○伝道の内容は、いかなる時も所も人も、変る事なく只キリストであるが、夫々器はことなり、対象はちがう故にその方法は千差万別であるが、重大な一つの事がこの御言より導かれうる。

○「わたしの言葉もわたしの宣教も」。之はある人の訳では、「わが談話即ちわが宣教。である。私の考えた、私の力になった宣教という意味ではなく、私のものとなつた

私の身に ついたと いう意味である。私の身に ついたこのキリストを宣べ伝えるのである。信仰と人格が一つになつた伝道である。

○このようにキリストを伝える事は、私とキリストとの生命的一致にある。伝道は単なる勧誘ではなく信仰告白なのである。自らがまずキリストに來らずしてどうして他をキリストに來らせうか、私がまずキリストに従う事なくしてどうして他をキリストに従わす事が出来るであろうか

「わたしの言葉もわたしの宣教も」。私が生命的にキリストに生きる、この最善の方法こそ誰でもがなしうる必要にして且充分なるものである



一月カレンダー

1967年

主よりの祝福の豊なる様にと祈りながら、今年もまた、福音新聞の編集を始めようと思います。

さて、今年の福音新聞に関する初夢の如きものは……と書き進める今、船橋教会の孟哲輝牧師の牧師館の火災を耳に致しました。12月も末近く、言葉に絶する様な、大変なことです……孟哲輝牧師及び、船橋教会の為に、主に祈ろうそして、私共が、主の兄弟として、その苦しみと悩みを共にし、孟哲輝牧師及び、船橋教会の為に、私共の出来る

③
「それはあなたがたの信仰が人の知恵によらないで神の力によるものとなるためである」とあるように、伝道する力の源泉は、

「神の力そのものである。人の力、人からの考え、人間的動機。からではなく、我らの中に働く神の力。聖霊であり神の恵みである。」

この亡ぶべき死すべき罪人私が、キリストの血でわれ罪ゆるされて、神の子とされたという喜び、この永遠の生命の恵みこそ、我らを伝道に押出す力である。一度働く事の喜びを経験した者は何もせずにじつとしておれないように、救いの喜びを味つた者は之を伝えずにはおれないのである。神の力は臆病なものを勇者となしうる。兎のように臆病であつた使徒達も聖霊が降つてからは獅子の如く大胆になつた。御霊にみちて伝道に押出されたい。

(R.O)

あなたが、わたしと共におられるからです
あなたのむちと、あなたのつえはわたしを慰めます。
わたしは生きているかぎりには必ず恵みといつくしみとが伴うでしょう
わたしはとこしえに、主の宮に住むでしょう。

(旧約詩23:)

さて、初夢の話なのですが、こんな初夢を見たいと思って正月元旦の夜、床に入つたのですが、いつのまにか、二日の朝になって、夢を見る時間が、なかったの……初夢はなく、それから、毎夜、夢を思うのですが、どうも、夢の見方を忘れてしまつて居る様です。

実は、編集者として見たい初夢は、福音新聞の原稿にうもれて、あまり原稿が多くて、こりゃ10頁の日本語版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ふことにならないものかと言ふことです。

ほとんど福音新聞の原稿に苦勞をしております。たのんで直ぐ、原稿を書いて下さるのは、熊本の金得三牧師、西成の金元治牧師、西宮の尹宗銀牧師そして京都の田永福牧師達、そして、青年会の中央委員の方々ぐらゐのもので、その他の方には、福音新聞など、批判の対象にこそなれ、原稿を書くなんて、とんでもないことらしい。教友、信徒、青年、O.B、男女、を問いません。今年は一つ書いて下さいませんか？本当に書いて下さい。又、心より祖国からの寄稿を待っております。

1967年

福音新聞を通して、より良き主の内にある交りのなされんことを祈ります。

(寿)

協力を致しましょう。たとえ小額のお金でも、新しいワイシャツでも、1男4女の子供達の為の洋服でも、私共の出来る何か一点運動を、青年会あたりが中心になって、起してくれないものかと、願う。そして、次の聖句をあらためて、牧師と、私共のものにいたしましょう。
主はわたしの牧者であつてわたしには乏しいことがない
主はわたしを、緑の牧場に伏させ
いこいのみぎわに伴われる
たとえわたしは、死の陰の谷を歩むとも
わがわいを恐れません。